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이 영 남*

1. 프롤로그
2. 뉴욕 Herstory Collection
3. 풀무학교전공부 10주년컬렉션
4. 공동체감각
5. 에필로그-패러다임의 변화와 중간단계 아카이브

* 이 글은 2011년 11월 한국외대 콜로키움 발표문, 같은 해 12월 명지대 콜로키움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풀무학교 전공부 교사.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 컬렉션의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살펴본 사례는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 Herstory Collection(Stony Brook Univ.)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풀무학교 전공부(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의 개교 10주년 컬렉션이었다. 전자는 뉴욕 주립대학인 스톤이 브룩 대학에서 지역단체인 Herstory Writers Workshop의 기록을 기증 받아 정리한 컬렉션이고, 후자는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개교 10주년을 맞아 수집한 기록과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록을 모아 정리한 컬렉션이다.

뉴욕 허스토리 컬렉션은 전문 아키비스트가 국제표준인 ISAD(G)에 따라 정리하고 기술한 것이다. 허스토리 컬렉션은 ‘지역기반+소수자 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말할 때 주요하게 지적되어 로컬리티 다큐멘테이션과 소수자의 기억과 정체성의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허스토리 컬렉션은 ‘대학 + 지역단체 공동 아카이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학과 지역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 아카이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자체적으로 기록 관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체를 아카이빙할 수 있고, 역으로 소중한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는 대학과 협력해서 자신의 기억을 아카이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무 전공부 10주년 컬렉션은 아마추어 아키비스트(풀무학교 전공부 재학생)가 국제표준에 따르지 않고 다소는 특이한 이야기 정리기술(Narrative Description) 방식으로 정리하고 기술한 것이다.

이야기 정리기술은 아직은 ‘기록 공동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그런데 풀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내부에 고유한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한 공동체 내러티브와 실제 기록물을 연결시켜 작업함으로써 이야기 정리기술은 공동체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기술방식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은 국제표준 적용방식과는 다른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또한 풀무 컬렉션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문 아키비스트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이 아마추어 아키비스트가 되어 만든 것이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비용문제, 인류학적 맥락에서 삶과 아카이브의 유대성 문제, 공동체의 고유한 내러티브와 실제 아카이브의 연관성 문제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것에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이 들어가듯이, 공동체 아카이브도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전문가-비전문가, 전문작업-일상생활 등의 격차에서 다소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풀무 컬렉션에서 내부 구성원이 이야기 정리기술이라는 새로운 정리기술 방법론을 만들어가면서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자유로움에서 유래할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국가 아카이브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국제표준, 미셀 푸코, 분류, 정리기술, 포스트 모던, 일상 아카이브, 이야기, 내러티브, 풀무, 대안학교, 아키비스트 주관성, 재현, 진본성, 기억, 기록, 공유, 개방, 과거

1. 프롤로그

푸코의 책 『말과 사물』의 앞부분을 읽노라면, 한두 장 넘길 때마다 푸코의 너털웃음이 들린다. 거기에는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이나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등이 출현하는데, 오늘날 어린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분류 방식을 진지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세기에 린네 분류법이 정립된 이후 서구 사람들이나 동북아 사람들에게 ‘계층적 분류법’이 아닌 여타 생물 분류법은 어색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푸코가 중국의 한 백과사전의 분류 방식(근대 이전)과 계층적 분류법(근대)을 비교한 것은 상대성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말과 사물>은 현대 상대주의 사유의 고전이다. 매사는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 푸코의 상대성은 결국 이런 차이의 명제를 말할 때 그 상대성인데, 사실푸코가 아니어도 존재하는 곳마다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분류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식보다는 표준이 운영할 때가 많다. 강목-과-속-종 등의 계층적 위계에 속하지 않을 때 그 동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룹-시리즈-파일-아이템 등의 계층적 분류 체계에 따르지 않는 기록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과거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이 명백하게 있었듯이, 국제 기술표준인 ISAD(G)에 속하지 않는 기록도 지금 어딘가 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단상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떠올랐다.

‘풀무공동체’는 생태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이다. 전통적으로 작은 공동체의 특징을 꼽으라면 직접적 접촉에 의한 친밀함, 구술 공동체, 규모에 맞는 적절한 농업기술 등을 들 수 있다. 풀무공동체에도 어느 정도는 이런 면이 있다. 현대의 관행농업은 기계화(트랙터, 콤바인

같은 거대 기계)와 화학화(제조제, 농약)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조건들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을 파괴한다. 아무리 넓은 농토라도 혼자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겠는가? 국가 기록원 같은 거대한 조직도 비슷하다. 국가 기록원은 분업화와 기계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굴러가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기록물을 다루고 있다. 이런 식의 ‘규모의 기록관리’에서는 아카이브와 공동체성을 연결시킬 수 없다. 그러나 풀무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아카이브에 대해 말할 때는 아카이브와 공동체성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이것이 ISAD(G) 같은 표준화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배경이다.

물론 ISAD(G)가 적용된 공동체 아카이브도 있을 것이다. 2010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몇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LA 지역에서는 한 대학이 지역단체들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사례를 접했다. 당시 그 대학을 방문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대학이 적극적으로 로컬리티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구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뉴욕에서는 한 대학을 방문해서 스페셜 컬렉션을 열람했다. 당시 방문한 곳은 Stony Brook 대학이었고 열람한 기록은 ‘Herstory Special Collection’이었다. 이 컬렉션을 열람하면서 그리 어색하지 않았고 낯설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ISAD(G) 방식으로 정리되고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기록 열람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맥락에서 ISAD(G)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ISAD(G)를 적용해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자의 맥락에서 스토니브룩대학의 허스토리컬렉션을 소개한다. 허스토리컬렉션은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도 아니었고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층 기술의 엄격함에 의해 잘 정리된 번듯함이 있는 컬렉션이었다.

세상에는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도 있고, 황제가 아닌 세계만민에게

속하는 동물도 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두 측면을 말하면서 “아카이브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방식의 다양성”을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또는 공동체의 시선으로 아카이브를 바라본다. 이 글은 기존의 논문 글쓰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는 인류학적 기술방식 또는 질적 연구론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할텐데,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카이브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기존의 서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가, 새로운 서술 방식도 필요하지는 않은가?

2. 뉴욕 Herstory Collection

1) 개요

아름드리단풍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졌고 캠퍼스는 노란 단풍잎으로 물들었다. 이른 아침 11월의 뉴욕 추위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차역에서 캠퍼스를 가로질러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2010년 11월, 2회에 걸쳐 뉴욕시 롱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스토니브룩대학’(뉴욕주립대학 중 하나)을 방문해 ‘Herstory Writers Workshop Special Collection’을 열람했다. 방문 전에 이메일로 대학 아키비스트에게 열람을 요청했고 아키비스트는 열람에 필요한 거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열람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열람용 책상 위에 기록물 상자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열람실에는 6개의 커다란 열람용 책상이 있었고 사방 벽에는 뉴욕초기의 사진들이 고풍스럽게 걸려 있었다. CD나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볼 수 있는 장치도 있었다. 열람실은 작고

실용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고풍스러웠다.

허스토리컬렉션은 20분 거리의 대학 인근에서 활동하는 <Herstory Writers Workshop>이라는 단체에서 2009년에 스톤브룩대학에 기증한 기록이다. 이 단체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때부터 롱아일랜드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컬렉션은 1996년 설립부터 2008년까지의 활동 기록(사진/ 편지 / 잡지/신문 / 팜플릿/매뉴얼/비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기록 기증행사 기록도 같이 정리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없었고 어떠한 열람제한도 없었다.

허스토리컬렉션을 정리 기술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스토리 컬렉션은 “3개 상자-9개 시리즈-37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자는 라면 상자의 2배 크기(높이만) 정도였다. 9개 시리즈는 주제별-형태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둘째, 각 Series 아래 총 37개 파일이 있었고 각각은 파일명과 파일번호로 통제되고 있었다. 셋째, 파일 아래 Item에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었다. 파일 description은 없었다. 허스토리컬렉션의 정리 기술 방식은 국제표준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리즈 1(역사)에는 설립자인 에리카던킨(Erika Duncan)의 짧은 회고록(설립부터 기록 기증 당시 까지 역사를 정리한 글)과 에리카던킨이 허스토리워크숍을 소개하기 위해 쓴 학술 논문과 팜플릿 등이 들어 있다. 이외에도 언론의 취재기사나 인터뷰 기사, 에리카던킨과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들어 있다. 시리즈 2(행사)에는 창립행사와 이후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된 모금행사 기록이 들어 있다. 창립행사 파일에는 참여자의 면면이 들어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행사 규모가 꽤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립행사를 축하하는 동무들의 편지도 있다. “지난 50년 세월 여전히 침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는 침묵의 세월을 말하기 시

작했습니다.” 공식 창립행사전에도 워크숍이 열렸던 것 같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수십 통이 들어 있었다. 어떤 점에 감사하는지 그래서 창립식 행사에서 어떤 점을 격려하고 싶은지를 적은 편지들은 하나같이 감동적이었다. 시리즈 3(대외행사)에는 허스토리 워크숍을 대외에 소개하는 여러 형태의 기록이 있다. 특히 스페인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 이는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리즈 4(편지)에는 설립자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받은 편지, 반대로 허스토리워크숍에서 후원자에게 보낸 감사편지 등이 들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받은 감사편지의 대부분은 교소도 재소자들이 보낸 것이었다. 어떤 파일에는 아예 교도소워크숍(Prison Workshop)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편지 수십 통이 들어 있었다. “고마워요.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나는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7개월은 오랜 세월 나를 짓눌렀던 공포와 대면하는 시간이었어요. 당신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보낸 천사예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이런 내용의 편지가 파일철에 잘 포개져 있었다. 어쩌면 파일 안에는 기록으로써 편지가 아니라 기록을 평계대로 구구절절 숨어 있는 애절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마치 오랜 비밀을 품고 몇 천 년을 죽어 있던 것들이 상자 뚜껑을 열자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깊은 애환이 파일 철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리즈 5(신문과 잡지)에는 롱아일랜드 지역신문기사가 들어 있다. 시리즈 6에는 매뉴스크립트와 출판된 작품이 있다. 설립자인 에리카던킨의 작품, 허스토리워크숍 매뉴얼, 그리고 워크숍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출판한 책의 원고가 들어 있다. 시리즈 7(사진)에는 감옥워크숍 사진들이 들어 있다. 죄수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시리즈 8에는 멀티미디어, 시리즈 9에는 사이즈가 큰 기록들이 들어 있다. 이상으로 허스토리 컬렉션을 간략하게 개관했다.

2) 의미

허스토리컬렉션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개져 있다. 하나씩 서술해 본다.

(1) 공동체 아카이브를 말할 때 지역을 위한 도큐멘테이션(Locality Documentation) 전략이 자주 언급된다(설문원, 2010; 윤은하, 2011). 허스토리컬렉션도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토니브룩은 뉴욕주 주립대학이다. 미국에서 주립대학의 사명이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학은 허스토리컬렉션 말고도 꽤 많은 지역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웹사이트에서 소개된 컬렉션이 240개 내외에 이를 정도이다. 대체로 20세기 기록이지만 18~19세기 기록도 있다. 허스토리는 이런 컬렉션중의 하나이다. 결국 이것은 ‘롱아일랜드 지역을 아카이빙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 스토니브룩대학은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롱아일랜드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 허스토리워크숍이라는 지역단체가 여기에 호응을 해서 기록을 기증한 것 같다.

(2) 공동체 아카이브를 말할 때 소수자의 기억과 정체성도 자주 언급된다(윤은하, 2011). 허스토리컬렉션은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때 훨씬 잘 보인다. 롱아일랜드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휴양 도시도 발달된 곳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중남미계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LA의 경우에는 멕시코 출신이 민자가 LA 인구의 40%를 점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스페인어를 쓰고, 같이 모여 산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인구 분포는 잘 모르겠으나 양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Herstory Writers Workshop은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롱아일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력하는 것은 가난한 소수자 여성들의 글쓰기 작업이다. 허스토리워크숍은 1996

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 2,000명 이상의 여성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허스토리컬렉션이 이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소수자의 기억에 해당할 것이다. 이 단체에서 주도하는 감옥 프로그램(Prison Program)은 소수자기억 아카이빙의 좋은 사례이다. 여성 재소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것이 본래 자신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것임을 깨닫고 폭로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사회가 규정한 비정상적인 인물이라는 가짜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경험을 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목소리, 가난한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아카이빙되는 한 이런 관점은 유효할 것이다. 국가 아카이브가 주류 목소리를 아카이빙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에 비하면 허스토리는 침묵의 소리를 아카이빙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런 점에서 허스토리컬렉션은 소수자의 기억과 정체성의 맥락에서 의미있는 기록이다.

그런데 만약 기억과 정체성 중의 어느 하나를 강조해야 한다면, 갈림길에서 마침내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만 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가 한 단계 더 깊숙하게 다루려면 기억과 정체성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재화된 기억, 또는 재현화된 기억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을 만드는 작업(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의학 등의 작업)을 아카이빙하는 것이 아닐까?

허스토리워크숍을 설립한 이는 에리카던킨(Erika Duncan)이다. 에리카던킨은 소설과 에세이를 쓰던 페미니스트 운동가였다. 에리카던킨은 1970년대 중반, 맨하튼 자신의 아파트에서 젊고 똑똑하고 전도유명한 여성들과 함께 ‘페미니스트 여성작가’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뉴욕 맨하튼의 여성들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할지 모르나 롱아일랜드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적합한 방식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민을 오기 전이나 이민을 온 후에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먹고살기도 바빠

모국어든 영어든 글을 써서 발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에리카던킨은 이런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간극을 발견했고 선택의 지점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1996년부터 진행된 허스토리워크숍의 방법론은 이런 문제의식에 닿아 있다.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가 아니라 상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듣는가에 초점을 두었고, 길고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감성적인 짧은 글에 초점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고독하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어울리며 작업하는 것을 핵심방법론으로 삼았다. 에리카던킨은 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심리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가와 상담을 하는 것, 친구와 둘이 나누는 대화도 고독한 혼자만의 작업이라고 본다.

소설가는 고독하게 밤을 새워가며 혼자 글을 쓰고 그것을 출판해서 독자들과 만난다.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허스토리워크숍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글을 쓰고, 낭독하고, 독자를 만나는 작업 자체가 중요하며 그런 공동체작업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술공동체의 전통과 글쓰기라는 지적인 작업을 합쳐놓은 방식이다. 허스토리는 글을 쓰는 데에 익숙하지 않고 그럴 여유도 부리기 힘든 여성들을 위해 ‘1페이지의 기억’이라는 모토를 자주 내건다. 단 한 페이지에도 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고, 그런 나의 이야기가 내 자신에게 치유와 공동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한 다른 이들(이방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생이야기를 하노라면 책 몇 권을 써도 다 못 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다 써놓고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길게 쓰느냐 짧게 쓰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원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룩한 업적들로부터 시작되는 기억과 내러티브인가, 아니면 이런 것과는 진실로 무관하기에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발원하는 기억과 내러티브인가? 허스토리는 후자라고 보고 그 길을 정체성(공동체 감각)으로 설명한다.

(3) 허스토리컬렉션은 한편으로는 ‘기증 기록’이라는 맥락도 있지만 ‘위탁기록’이라는 맥락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허스토리워크숍은 기록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대학에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 미묘한 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스토니브룩대학과 허스토리워크숍이 대학 아카이브를 ‘공동아카이브’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기증 → 스페셜 컬렉션”의 통상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록을 기증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기록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록을 기증하고, 기록관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기록만을 선별해서 기증을 받아 정리 기술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허스토리컬렉션에는 이와 달리 능동적인 면이 느껴진다. 허스토리워크숍은 기록을 자체적으로 아카이빙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여건상 단독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인근 대학과 공동 작업을 한 것은 아닐까? LA에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 LA 코리아타운에는 KIWA(Korea Town Workers Association)라는 한 노동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도 자체적인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는데 마침 한 대학에서 지역의 의미있는 단체들의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었고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기증을 유도하는 운동이나 커다란 기금으로 운영되는 로컬리티 다큐멘테이션과는 다르다. 오히려 아카이빙의지를 가진 단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커뮤니티아카이브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 기록을 관리하려면 가상공간 개념이 필요하다. ‘대안적 공동체가 추구하는 독자성과 연대성이라는 지평에서 보면’공동아카이브라는 가상공간 개념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허스토리컬렉션에 포개진 세 개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요약해 보면, 허스토리컬렉션에는 “지역기반+소수자기반의 아카이브”와 “대학+단체 공동 아카이브”의 구도가 잡히고, 그 가치는 빛난다. 허스

토리컬렉션은 지역을 아카이빙하고, 소수자지역과 정체성을 아카이빙하고, 나아가 대학과 지역단체가 협력해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매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도 허스토리컬렉션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공동체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다 좋은데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도 아카이브의 장애 개방과 협업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심어주는 허스토리컬렉션이 빛날 것이다.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언급할 때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대학 아카이브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대학의 사명을 구현하는 존재이니 만큼 대학 아카이브에서도 눈길을 돌 만하지 않을까 싶다.

3. 풀무학교 전공부 10주년 컬렉션

풀무학교 전공부 10주년 컬렉션 작업(이하 풀무전공부 컬렉션)은 풀무학교 전공부와 마을공동체 문화연구소(마문연)의 공동 작업으로 2011년에 진행이 되었다. 컬렉션 소개를 하기 전에 풀무학교 전공부와 마문연을 먼저 소개한다. 풀무학교 전공부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2년 성인과정의 농업대학이다. 풀무전공부는 개교 당시부터 ‘마을 농업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오전에는 인문학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다. 풀무전공부는 마을 대학의 사명을 살려 마을을 연구한다. 풀무전공부 컬렉션이 마을 아카이브의 맥락을 갖는 것은 학교의 이런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마문연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근거지를 두고 2011년에 창립된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마을 아카이브’ 사업

이다. 그래서 마문연은 구술, 마을지, 기증 유도 및 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마문연에서 이 사업을 지원한 것도 마을 아카이브를 마을공동체 문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풀무전공부 1학년 학생 8명은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해 컬렉션 작업을 했으며, 마문연은 홍성군에서 받은 돈으로 작업을 지원하고 조직했다.

이 작업은 <사진과 내러티브>라는 타이틀로 3개월간 진행되었다. 작업대상 기록은 2001~2011년 전 공부 사진 42,384장(50GB, 모두 디지털 파일)이었다. 사진의 수집 출처는 학교가 그동안 보유했던 사진,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졸업생과 교사 등에게 기증받은 사진 등이다. 개교 10주년 기념사업은 학교 차원에서 매달 진행이 되었다. 10주년 영상 작업, 강연, 전시 및 학교 구성원의 기억 나누기 등의 이벤트가 있었다. 컬렉션 작업도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 사진은 작업팀이 넘겨받을 때 ‘PC 폴더형식’으로 이미 연도별-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 작업팀은 더 이상의 물리적 정리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술만 해두었다. 이번 컬렉션 작업은 그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1) 이야기기술(Narrative Description)

이번 컬렉션 기술 방법론은 이야기기술(Narrative Description)이었다. 방식은 이와 같다. 기술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편의상 풀무 아키비스트)은 사진 4만여 장을 자신의 노트북에 가져갔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씩 들춰보면서 하나의 시리즈(주제)를 잡은 후 이 시리즈에 맞는 사진 파일을 따로 모았다. 어떤 이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기숙사 방안에 스탠드 하나를 켜놓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들은 ‘농부의 정직함으로’ 4만여 장의 사진을 모두 들춰보았다. 풀무 아키비스트는 이렇게 별도로 모은 사진 파일을 모아서 자기만의 컬렉션을 만들었고 이를 기술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각자의 콜렉션을 합쳐서 풀무콜렉션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각자는 자신의 콜렉션을 만들기 위해 사진 속 인물들, 지역에 남아 있는 선배, 전공부 교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연관된 문서 기록도 찾아 읽었다. 어떤 이는 아무개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만 아이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바람에 어수선하게 인터뷰를 하고는 어정쩡하게 돌아왔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오히려 그 장면에서 기록에서 보지 못한 점을 볼 수 있었다고 했고 그것을 기술서에 녹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신의 컬렉션을 만들어 이것들을 지도 만들기 형식으로 덧붙여 하나의 거대한 컬렉션을 만든 방식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런 작업의 전체를 하나 말해두면 다음과 같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애초에 작업의 전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될 수 있는 ‘선형적 계층 기술’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형적 틀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기록을 배치하는 방식은 우리에게서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이해에 따라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것들이 지도의 지형물들처럼 풀무전공부 컬렉션 지도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하나의 상징적 풀무컬렉션이 형성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풀무 아키비스트들은 자신의 고민을 풀무질해서 기술서를 만들었다. 이들의 기술 형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에세이 형식의 글이었고 둘째는 자막 나레이션이 있는 영상이었다. 에세이 형식의 기술서를 제출한 이들은 PPT형식의 보조 기술서도 같이 제출했다. PPT는 사진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 프레젠테이션에 유리했다. 우리는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람들 앞에서 컬렉션 작업을 소개하는 공개발표회를 가졌다. 사실 PPT파일은 작업의 개념을 잡는 초기나 작업 과정에서 각자의 중간 보고회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국 최종 발표회에서도 제출용 PPT로 세련되게 정리되어 발표자료로 활용이 되

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8개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풀무전공부 10주년컬렉션시리즈>

시리즈	세부내용
풀무벼	<p>제목: 추청할아버지의 구술생애사</p> <p>내용: 전공부 사람들은 학교부지(갯골논)에서 매년 논농사를 짓는다. 추청은 일본에서 들어온 벼품종(일본명: 아키바리)이고, 갯골논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번기술작업은 벼와 농부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풀무전공부벼 10년을 기술했다</p> <p>형식: 벼(추청할아버지)와 농부사이의 대화형식의 내러티브(대화내러티브)</p>
풀무애원동물	<p>학교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에 대한 내러티브(최종기술서는 제출되지 않음)</p>
풀무의 공생공락	<p>제목: 풀무전공부의공생공락</p> <p>내용: 공생공락은 풀무처럼 생태농업과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는 곳에서 강조하는 가치이다. 기술자는 공생공락의 전범을 보기 위해 재학 중 공생공락을 가장 잘했다는 8기 선배들의 삶과 자신의 고민을 기술했다</p> <p>형식: 에세이 형식의 신화를 통한 공생공락내러티브(신화내러티브)</p>
풀무학생의꿈	<p>제목: 꿈아카이빙</p> <p>내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농사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꿈과 고뇌를 같은 처지의 20대선배들의 사진을 모아 젊은 날 꿈과 고민을 기술했다</p> <p>형식: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풀무전공부를 말하는 패기의 내러티브</p>
풀무정원	<p>제목: 정원, 정원텃밭이야기</p> <p>내용: 풀무전공부의 독특한 농법인 정원텃밭을 가꾼 정원교사와 인터뷰, 정원사진 등을 엮어 정원텃밭의 역사와 의미를 기술했다</p> <p>형식: 수필에세이 형식의 정원텃밭내러티브 (역사내러티브)</p> <p>*정원텃밭: 옛날 시골집 들레풍경이기도한 자급위주의 소농방식을 현대화한 농법</p>
풀무기숙사	<p>제목: 전공부생활 1년, 그리고 신발정리</p> <p>내용: 기숙사 1년생활을 기술했다</p> <p>형식: 자전에세이형식의 공동생활내러티브</p>

폴무여성들	제목: 폴무여성 내용: 존경하는 선생님의 10년 사진을 모아 그 선생님에게 헌정한 스페셜 컬렉션 형식: 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폴무여성을 영상내러티브
폴무한해	제목: 폴무, 2011 내용: 2011년 한 해 동안 폴무생활을 기술했다 형식: 폴무의 한해살이를 말하는 동영상내러티브

이상으로 간단하게 8개 기술서를 요약했다.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기록을 기술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황제에 속하는 동물’이 한때는 존재했듯이 ISAD(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리즈도 존재할 수 있다.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이 신하에게는 속하지 않았듯이, 폴무에 속하는 시리즈가 반드시 국제표준에 속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일부러 고립을 자처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급과 연대는 폴무 같은 공동체에서는 절대 명제이다. 교류와 연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고립을 자처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기술서 형식은 국제표준과는 명백하게 다르다. 들쭉날쭉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해서, 그래서 개인별 층차가 있고 어떤 통일성조차 보이지 않는 자의성마저 보이겠지만, 그래서 비록 객관성의 신화에는 닿지 못하겠지만 폴무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기술서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으로는 정리 기술이 아니라 정리 기술된 기록을 활용한 역사 서술이나 에세이가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들 것 같다. 얼핏 보면 아카이브의 기술 작업이 아니라 기록을 이용한 역사나 에세이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 기록원 같은 내셔널 아카이브는 아마도 이런 기록들을 기술서에 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폴무 아키비스트들은 다르게 접근했다. 폴무 아키비스트들이 이렇게 접근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림 밖에

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그림 안으로 들어간 화가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산자 / 아키비스트/열람자의 전통적 분업구도하의 아키비스트에는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생산자이면서 아키비스트이면서 열람이용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르가 불분명하고 성격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열람자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남긴 흔적이들이 만든 기록이며, 이들은 아키비스트라는 신분으로 컬렉션 작업에 참여했다. 비록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과 같아 보여도 이들이 만들어낸 기술서는 풀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다른 외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8개 시리즈가 표면적으로는 각각 들쭉날쭉한 편이지만 전체를 관류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기술 방법론이다. 이야기기술은 기록학보다는 인류학적 접근이나 심리 치유적 접근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할 수 없지만, 풀무컬렉션의 이야기기술은 인류학적 접근이나 심리 치유적 접근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안에 들어간 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그림 안에 들어간 화가

푸코의<말과 사물>에는 벨라스케스의 작품인 “시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화가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 화가는 그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화가는 그림의 바깥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화폭에 표현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스스로 화폭에 들어가 그림 속 인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 법이다. 푸코는 이것을 칸트 이래의 선형적 주체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아키비스트가 기록물과 자신을 구별 짓고 기록물을 대상으로 만들어 계층 기술적으

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매우 전통적인 선형적 방법론이다. 푸코가 1966년에 <말과 사물>을 통해 선형적 주체의 죽음을 선포했지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칸트가 틀렸고 푸코가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선택의 문제는 아닐까? 어느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삶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논의해볼 점이라 생각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국가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아니, 어쩌면 달라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풀무컬렉션 작업을 하면서 푸코의 방법론을 수용했다. 우리는 밖에 서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잠시나마 그림 안에서 황제, 공주, 시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유자적하는 화가가 되었다.

풀무 벼를 내러티브주제로 선정한 한 아키비스트는 갓골논(학교 농사 실습 논)의 벼를 기술했다. 그이는 그림 속에 들어간 화가처럼 논 안으로 들어가 벼를 기술했다. 논 밖에서 벼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 논에는 어떤 품종의 벼들이 자랐는지, 얼마만큼 작황이 되었는지, 논이 형질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농법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 이런 것을 기술하지 않았다. 그이는 논 안에 들어가 벼의 시각으로, 벼의 입장에서 풀무농사를 기술했다. 물론 그이의 내러티브는 순전히 그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그이는 10년 동안 농업 실습을 담당했던 선생님 세 분과 정밀하게 인터뷰를 했고, 풀무컬렉션을 ‘농부의 정직함으로’ 점검한 후, 풀무전공부 논농사 사진을 정리했다. 정리방식은 세 그룹으로 나뉘, 첫 번째 그룹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한 해 농사를 과정별 폴더로 배치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농사 사진을 연도별 폴더에 배치했다. 세 번째 그룹에는 벼의 눈높이에서 찍거나 화면이 좋은 사진을 월별로 뽑아 일 년 벼농사과정을 재구성한 사진을 하나의 폴더에 배치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와 같다.

<풀무 벼 내러티브의 폴더 배치>

Record Group	Series	주요내용
Group1 (연도별)	2001~2011년	논농사 사진을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
Group2 (주제별)	01 벼씨	벼씨 처리 과정 사진 - 꺼럭제거, 소분, 열탕소독, 침중, 파종의 모습
	02 모-못자리	못자리 만드는 과정사진 - 못자리만들기, 파종한모판나르기, 부직포씌우기, 부직포벗기기, 다큰모판나르기, 자라나는 모의 모습
	03.1 모-모내기	모내기과정사진 - 모내기행사, 기계이앙, 모의 모습
	03.2 모-모내기후	모내기이후과정사진 - 뜰모, 오리와 우렁이 넣기, 모의모습
	04. 모-김매기	김매는 과정 사진
	05. 벼-추수	추수하는 과정 사진
	06. 빈들	추수 후 빈들 사진
	07. 벼단	벼단을 말리고 묶는 사진
	08. 일과사람들	사람들이 참을 먹고 쉬는 모습
Group3 (스페셜)	벼 1년	벼의 눈높이에서 찍거나 화면이 좋은 사진을 월별로 뽑아 일년 벼농사과정을 재구성한 사진 - 시기별, 꽃이나 갯골논전경 등도 여기에 배치했다

기록의 배치는 위와 같이 했지만, 풀무 아키비스트는 배치 폴더의 각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을 최소화했다. 그이는 10쪽 분량의 기술서를 작성했지만 항목별 설명과 분류 체계는 1쪽 정도 할애를 했다. 3쪽은 프롤로그와 준비 과정을 기술했다. 이 부분은 앞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시리즈를 정하고 기록을 분류하되, 자신의 분류 체계

와 작업 과정은 기술해 주기로 했었다. 나머지 6쪽은 ‘추청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기술했다. 이 부분이 각자 자유롭게 기술한 부분이고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부분이며 그래서 각기술서의 성격을 좌우한다. 이 기술서는 대화를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대화 기술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대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경 : 예. 헌데 어르신, 이 일대 동물들 배를 채워주신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추청 : 허! 답답한 인살쎄. 벼가 뭐여, 쌀이 뭐여? 밥 아녀밥! 어디 이 일대 동물들뿐이여? 자네 사는 전공부도 다 나를 먹는겨. 자네덜이야 다 걷고 털어서 창고에 모셔놓지만 나 같이 떨어지는 벼가 있어야 이 동네 들짐승들이 그나마 주린 배를 채우지.

(이하 생략)

대화 기술의 한 부분을 인용했다. ‘추청’은 풀무전공부에서 재배하는 벼품종 중의 하나로, 가을하늘이란 뜻이며 아끼바리라는 일본품종을 개량한 것이다. 풀무 아키비스트는 추청과 대화를 나누며 기술 작업을 했다. 대화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한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 기술서는 시종일관 인간의 시각에서 벼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지 않고 벼의 입장에서 인간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렸다. 벼 내러티브는 갯골이 인간만의 독무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이라는 서사를 말해준다. 풀무에서는 논밭을 그 저작물이 자라는 곳으로 보지는 않는다. 논밭은 학교이거나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갯골에는 논밭 학교가 있고 매년 논 생물 다양성 사업이 펼쳐진다. 만약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농사과정을 기술했다면 생태적 이야기를 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풀무기록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결국 풀

무를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풀무의 기록은 풀무의 갖 골논이 생태농업지역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고, 생태농업이 무엇인지, 풀무에서 하는 생태농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징적으로 말해야 한다. 풀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풀무농사 기록을 보려고 할 때도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풀무 아키비스트는 논 밖에서 기술하는 아키비스트가 아니라, 논 안으로 들어간 아키비스트가 되어 기술서를 만들었다.

나머지 7개 기술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싶으나 분량의 제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3) 풀무 컬렉션 작업의 의미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작업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종을 올려야 하는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 풀무전공부 역사 교사가 가이드 삼아준 ‘풀무기술서가이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도하기 전에 변형되었으며, 변형의 자리에서는 새로운 기술서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특출나서인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작업한 것이 불량품인가? 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있다. 풀무 아키비스트들이 만든 기술서(예:대 화 기술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서는 의미를 살펴본다.

(1) “보이는 정원에서 보이지 않던 정원의 이야기를 읽었다”

한국 늑대는 19세기 말기까지 한반도에 널리 분포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해로운 동물을 없앤다는 이유로 3천 마리의 늑대가 학살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사냥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쥐약을 먹고 짐승들이 죽어가자 이들을 잡아먹은 늑대들도 같이 죽어갔다. 1960년 경북 영주에서 늑대 다섯 마리가 잡혔다. 1984년 강원도 두타산 인근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이

후 적어도 남한에서는 늑대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늑대울음 소리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늑대울음소리만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늑대울음소리가 한밤의 적막을 깨뜨릴 때 펼쳐지던 풍경들도 우리 곁을 떠났다. 겁이 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던 아이들, 닭과 돼지를 우리 속에 더 깊이 단속하던 농민들, 겁이 나서 더 깊이 숨던 개들 …… 이런 늑대울음의 사운드 스패이스(soundscape)도 종적을 감췄다. 달빛이 환한 밤, 늑대는 무언가를 갈구하며 누군가를 향해 울부짖었을 것이다.

앞서 ‘대화 기술’을 소개할 때는 벼의 침묵을 기술하면서 침묵의 스패이스를 잠시 그려 보았다. 다른 기술서들도 이야기기술을 표방했기에 각자의 스패이스를 창조했다. “보이는 정원에서 보이지 않던 정원의 이야기를 읽었다”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할까? 정원 기술서에는 사진에 나오지 않은 장소들이 들어갔고, 사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사진이 말하지 않는 사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키비스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다. 거기에는 “미술이나 목공, 통나무 교실, 문학, 예술 분야의 공부모임을 별도로 하거나 농한기에는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 등장했다. 이것은 정원이 생긴 후 변화를 말하는데, 이런 변화의 사진들도 물론 4만여 장 속에는 들어 있다. 그러나 ISAD(G)같이 격자화된 기술체계에서는 정원(A)과 농한기책모임(B)의 인과 관계를 기술할 수는 없다. 반면 이야기기술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A와 B를 매핑시킬 수 있었다. 이야기기술은 스패이스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스패이스도 등장했다. “학생들은 꽃밭과 꽃나무 교실을 통해 텃밭과 농장에서 꽃과 나무, 허브와 채소를 직접 키우고 수확해서 요리를 해서 먹거나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공부를 한다. 꽃과 나무는 인간의 폭넓은 삶으로 이끌어주고 초대하고 있다. 허브를 이용한 소금으로 감자를 굽고, 차를 만들고, 빵을 굽는 등 일상

의 부분들에 스며들고 있었다.” 이 기술 내용은 정원이 생김으로써 어떤 문화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사진이 보여주는 정원 문화도 있지만, 이야기기술이 보여주는 정원 문화도 있다. 격자화된 ISAD(G) 기술이 문화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반면 이야기기술은 그 자유로움 때문에 문화를 기술할 수 있다. 물론이야기기술은 실증적인 기술 작업이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형식이 자유로울 뿐이다.

(2) 기록의 빈 곳을 장소화하는 작업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기록의 빈 곳을 장소화하려고 했다. 역사가들은 이런 말을 한다. 사료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 기록은 스스로 말하지 않을 뿐더러 기록에는 빈 곳이 많다. 어쩌면 기술 작업은 빈 곳을 기술하는 작업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 기록의 빈 곳들을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기록 사이마다 기술서가 들어간다면 기술서는 기록의 빈 곳을 장소로 만들어 기록 모체의 실제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를 전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게 될 지금 내 또래, 앞으로 내 나이가 될 사람, 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야기를 통해 좀 더 실제적인 풀무를 알게 될 것이다.” 당초 사진 4만여 장에는 꿈이 없었다. 꿈을 찍은 사진은 없었다. 사람마다 꿈을 꾸며 사진을 찍었고 사진마다 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기록의 표면에서 꿈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꿈은 기록의 빈 곳에 있었고 꿈을 아카이빙하는 것은 기록의 빈 곳을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었다. 어쩌면 꿈을 아카이빙한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대라면 꿈을 꾸기 마련이고 기록의 표면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빈 곳에서 기록의 꿈을 찾아내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다. 우리는 기록을 왜 통제해야 하고, 왜 기록 기술서를 남겨야 하는가? 그것은 기록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기록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방대한 기록을 앞에 두고 이 말을 떠올리면 저절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통제한다는 국가 통치의 용어보다는, 자유로움이 허용되지 않는 격자의 시각보다는, 기록의 빈 곳을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말들이 더 어울린다. 적어도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유전자를 통해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브’에 대해 말한다. 어머니로부터 딸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그것을 끝없이 역추적하면 인류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적어도 공동체 아카이브에는 이브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한 아키비스트는 꿈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의 빈 곳에 꿈과 열정의 장소를 만들었다. 그것은 풀무의 실제적인 모습 그대로 이기에 후일 누군가 풀무를 여행할 때 매우 유용하게 지도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기록의 빈 곳을 찾을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이브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다.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담론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자 기록의 시대가 되었고 개별 과학의 담론도 포스트구조주의 사유의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키비스트가 평가 선별이라는 작업을 통해 기록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정리와 기술이라는 조직화작업을 통해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간단한 것이 아니”(조민지, 2011)게 되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의 프리즘을 통해 재현된 기억은 과연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가?”(조민지, 2011)라는 물음에 근원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되었으며 내친김에 새로운 기술 작업을 실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풀무컬렉션 작업은 새로운 실험의 장이었다.

푸코는 <임상 의학의 탄생>에서 18세기 분류의학과 19세기 임상 의학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이런 점을 지적한다. “어떤 유명한 의사는 커다란 병동에 50명에서 60명에 이르는 환자를 두고 각자의 호소를 들은 다음, 네 부류로 분류해 첫 번째 부류는 고혈을

짜내게 하고, 두 번째 부류는 하제로 환자를 씻어내게 하고, 세 번째 부류는 관장을 하게 했고, 네 번째 부류에게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했다. 이것은 의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빈민 구호소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별성을 관찰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 관찰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찰자의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개별적으로, 임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토대로 분류하고 집단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대규모 기록을 앞에 두고 있는 아키비스트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을 앞에 놓고 있는 의사의 처지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폴무아카이브 작업은 어쩌면 국가 아카이브를 전체로 놓고 보면 ‘저변방(갓골)의 보이지 않는 점’일지도 모르겠다. 변방이라고 해도 폴무사람들은 개의치 않을 테지만, 그래도 작은 공동체는 본성이 포용적이다. 국가가 어떻게 대하는 작은 공동체는 개의치 않고 국가이든 그 누구이든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한다. 문제는 양자를 이어주는 다리며 공동체들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런데 국가가 거대한 돈을 들여 일원적인 검색·열람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정리 기술 방식을 모든 공동체 아카이브가 써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갓골의 벼 한 톨을 표준분류 체계는 담을 수 없다. 만일 개별 공동체의 특성이 국가표준으로 개체성이 탈색되고 유사성에 입각해 분류되어버린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푸코는 분류의학-임상 의학의 단절을 설명하면서 “조직 일부분의 얇은 층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분류의학은 포착할 수 없다”는 말로 임상 의학으로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시점에서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개별 공동체 내부의 얇은 층에서 퍼지는 바이러스를 표준분류 방식은 결코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분류 방식으로는 추

청과의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정원의 스케이프를 만들 수도 없으며, 나아가 20대의 꿈을 아카이빙할 수는 없다. 풀무를 알기 위해 기록을 읽어야 한다면, 침묵의 스케이프를 읽어야 한다. 그런데 ISAD(G)방식은 침묵을 기술할 수 없으며, 침묵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창조할 수 없다.

포스트모던 정리 기술은 경계에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지금 단계에서는 포스트모던 정리 기술이 객관과 주관의 경계에서 국가 아카이브의 정리 기술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리 기술의 매핑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조민지, 2011) 기록 기술담론들이 더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개방과 연대를 표방하는 공동체 아카이브 입장에서 볼 때 포스트모던 기록 기술담론은 주목할 만하다.

(3) 이야기지도(Narrative Maps)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란 결국, 아키비스트가 대상물에 대해 직접 가하는 간접적인 설명”이고 “기록 기술은 기록물과 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터페이스”(조민지, 2011)이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번 풀무전공부 컬렉션의 기술서들을 기술서라고 할 수 있을지 주저스럽다. 더구나 최종 작업 결과로 제출된 기술서에는 ISAD(G)의 기술 항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업을 공동체 아카이브기술 작업의 사례라고 부르려고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애초에 ISAD(G) 같은 것을 모르고 진행했다면 몰라도, 이 작업은 애초부터 목적의식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는 다른 기술 방식을 찾았다. 공동체 아카이브 정리 기술은 표준화된 방식 바깥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었다.

사태가 정말 복잡한 것은, 이번 작업이 다른 무엇보다도 ‘주관적’이었다는 점이다. 기술서 한장 한장에는 풀무 아키비스트 각자의 삶이 고

민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고, 어떤 이는 젊은 날의 초상을 그렸다. 기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컬렉션 시리즈 선정 이유가 풀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으로부터 왔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러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해보고 사회 경험도 쌓아보며 제사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해맸는데 약 1년 동안의 유럽공동체를 돌아다니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컬렉션주제는 ‘풀무전공부의 공생공락’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동생활을 중요시합니다…… 수업 중에 ‘공생공락’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컬렉션의 시리즈는 기록 그 자체도 아니고 기록의 모체인 학교도 아닌 작업자 개인으로부터 온 경향이 있었다. 개인마다 층차가 발생할 소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물론 위의 인용문에서 일부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애초 의도는 균형 잡힌 시리즈 선정이었다. 시리즈를 잡을 때 <주관적인 것+객관적인 것, 또는 작업자 개인의 삶과 풀무라는 시대적 공간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알 수 있는 것을 선정해 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치 그림 안으로 들어간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자고 했지만, 무턱대고 그림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경계를 만들어 두고 그림 안과 그림 바깥을 좀 자유롭게 오가자는 것이었다. 작업이 끝난 이 시점에서 이런 균형성이 얼마나 충족이 되었는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다. 풀무전공부 컬렉션이 아무리 균형을 갖춘다 해도, 아마도 국가 아카이브 입장에서 보면, 또는 ISAD(G)의 관점에서 보면 작업자의 주관적 의도나 감정이 묻어 있는 기술서를 기술서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편부당한 객관적 기술이라는 이상과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일 텐데, 이런 가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서 허스토리컬렉션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공동

체 아카이브에서는 ISAD(G) 같은 표준기술 방식을 채택해 서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점도 있다. 객관성의 효과만큼이나 주관성의 효과도 있다. 주관성을 통할 때 공동체의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우리가 컬렉션 작업을 할 때 ‘인터페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누구라도 풀무기록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접근 방식은 비록 다르겠지만 도달하는 목표지는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아직도 ‘인터페이스’가 되는 기술 작업을 존중한다. 다만,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더 없을까를 고민했고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지도 (Narrative Maps)’의 형식도 생겨난 것 같다. “기술이 기록물과 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터페이스”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 말은 아마도 지금 시대가 인터페이스를 부정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는 시대이며, 아키비스트는 그것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풀무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직접적인 설명을 가하고(‘이야기기술을 통해 세계를 창조’),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의 세계라 칭할 수 있는 이야기 지도를 만들게 된 것도 공동체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지기 위함이었다.

이상으로 풀무컬렉션 작업에 대한 소개를 마친다. 마지막 부분에서 풀무 작업의 의미를 말했는데 좀 거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황제(공동체)에게 속하는 동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준을 향한 욕망만큼이나 탈 표준 욕망도 필요하다.

4. 공동체감각

1) 허스토리 의문점

허스토리컬렉션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이렇게 잘 정리된 기록이 워크숍에 참여했던 2,00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들의 실제 삶과 이 컬렉션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심지어 에리카던킨이나 워크숍 운영자들의 여성 역사 쓰기 작업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이 기록을 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 말고 더 있을까? 앞으로 100년 세월이 흐를 동안 누가 어떤 이유로 이 기록을 볼 것인가? 100년 후 그 컬렉션은 사라질 수도 있다. 만약 나 혼자 그 컬렉션을 보고 100년 동안 누구도 보지 않은 채 소멸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기록인가, 뭐하자는 기록인가..... 만추의 스토니브룩 캠퍼스에는 노란 은행잎이 가득했다. 가슴으로 파고드는 바람은 매우 찼고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다. 뉴욕 맨하튼으로 돌아가기 위해 캠퍼스를 가로질러 기차역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

기차를 타니 창밖은 컴컴했다. 도무지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창밖의 어둠을 보면서 왜 이런 물음이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허스토리워크숍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Shaping Stories in Community”(동무 되어 함께 이야기를 만든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밥을 나눠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밥상 공동체처럼 이야기 공동체라는 맥락이 가능하다. 허스토리워크숍에서 공동체와 이야기를 연계시켜 강조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허스토리컬렉션에 등장하는 2,000명은 가난한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로 분류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것이

허스토리워크숍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51 대 49의 비율로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들은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고 고립된 처지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립된 느낌에서 벗어나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허스토리워크숍은 이때 느낌을 “Sense of Community”(공동체 감각)이라고 부른다.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그러기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은 침묵한 자의 침묵을 깨는, 또는 침묵을 이야기하는 장이다.

그 다음날 허스토리워크숍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다. 아카이브를 방문해 잘 정리된 기록을 본 열람자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기록을 들여다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일까? 아카이브에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으나, 허스토리워크숍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에리카던킨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난 후에, 그리고 실제 워크숍 현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해본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에리카던킨과 저녁을 같이 먹고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실제 워크숍에 참여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눠본 후에야 ‘공동체 감각’이 혹시 내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왔다.

2) 풀무, 상징과 환유

풀무는 일종의 상징이자 환유이다. 지역적으로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인근 2 개면 포함)에 위치한 지역공동체를 상징한다. 교육적으로는 다양한 마을 학교를 상징한다. 1958년에 설립되어 여전히 대안학교의 척도로 회자되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풀무 고등부)와 2001년에 마을 대학의 기치를 내걸고 이제 개교 10주년을 맞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환경농업 전 공부(풀무전공부)가 ‘문자 그대로의 풀무학교’이지만, 지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런 연결망이 풀무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발도로프 어린이집, 혁신 공교육 중학교, 지역의 장애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년 인턴십과 교사를 위한 우애의 연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풀무로 환유된다. 또한 풀무는 생태농업과 대안 공동체를 상징한다. 풀무 고등부와 흥동지역 농민들은 1976년부터 유기농업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흥동면과 인근 2개면까지 확대되어 국내 최대의 생태농업지역이 되었다. 이처럼 풀무는 하나의 학교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대안학교, 그리고 생태농업의 상징이 되었다. 풀무전공부 10주년 컬렉션은 이런 구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풀무아카이빙 작업을 2011년 하반기에 진행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07년에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한편 풀무는 아니었지만 2009년에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아카이빙하는 작업도 해보았다. 당시 두 케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랬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범사례(외국 사례)를 찾아서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개선방안을 찾아본 후 제안하는 형식이었다. 기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접근했다. 뭘 잘 알아서 전문가였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그 작업들은 기록 학대학원 세미나였고 참여한 이들이나 나 역시 전문직업을 지향하는 이들이었기에 그런 형식적 측면에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이상하게 작업하면서 내내 허전했다.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2007년 풀무 작업은 풀무교사가 되면서 진행한 것이었고 2009년 교회 작업은 전에 다니던 교회였다. 작업을 하면서 내부 구성원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

풀무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이번 컬렉션 작업과 공동

체성에 대해 묻곤 한다.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귀속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저에게는 공부다. 당장에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 만들기는 저에게 많은 공부도 주고 있고 심지어 사진 정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귀속감이 아니라 모두와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어떤 가족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나의 두 번째 가족이 아닌가, 혹은 나와 함께 농사를 지을 친구 혹은 도움의 손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표현을 달리했지만 나는 이 말을 공동체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2007년과 2009년의 허전함, 그리고 뉴욕에서 느꼈던 의문점이 많이 풀렸다. 국가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가 국민 만들기(Making Nation)라는 거대서사(Grand Narrative)의 사명에 복무해야 한다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내러티브라는 미시 서사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풀무 아키비스트 8명은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기록 학대 학원 세미나라는 형식도 없기에 도저히 전문가라 할 수 없다. 이들은 비록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특이한 역사 교사를 만나 우연히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생경하지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동무 되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아마추어에게는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는 사람, 주말이면 사진기를 들고 산야를 다니며 사진을 찍는 사람,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있어서 즐겁기만 한 사람…… 이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풀무 아키비스트들도 자신들이 선택한 삶으로 들어온 이물질들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 것 같다. “왜 공생공락내러티브를 선택했느냐고요? 전공부 들어와 반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번 작업을 통해 그것을 사유하고 싶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공동체담론 추이를 보면, 1950~1960년대에는 공동체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뒤르켐이나 파슨스의 기능주의적 이론이 적용된 기능주의적 분석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한편 1980~1990년대에는 인류학적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지역성(Locality)나 LGBT(성 소수자) 등 다양한 공동체 연구가 펼쳐졌다고 한다. 이런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인류학적 흐름에서 코헨(Cohen)의 이론이 흥미롭다. 코헨은 공동체의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경계는 주로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처럼 의례와 상징 같은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 공동체의 경계가 구획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 있다. 1980년대초 미국 LA 한 유대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작업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외부 증인(Outer Witness)라는 개념이 있다. 유대인 공동체는 이민 생활을 함께 견디지만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일종의 유대교 전통의례인 ‘증언’을 채택함으로써 고비를 넘겼다. 이민자로서 자신들의 과거, 문화를 증언해줄 증인들이 없었으나 상호 ‘인정의식’을 도입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매우 간단한 의례였으나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컸다. 자신이 보여지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상호 인정하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모으고 이해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앞서 인용한 풀무 아키비스트의 증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풀무 전공부 10주년 컬렉션 작업이 상호 인정 의장이라면, 그리고 이런 특이한 컬렉션 작업을 아카이브범주에 넣을 수 있다면, 공동체 아카이브도 공동체 감각과 연결시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만약 ‘애국심’, 역사 의식, 민주주의 등으로 지난 10년의 국가 아카이브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아카이브의 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말도 찾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말들의 풍경이 필요하다. 경영학이나 IT 등에서 오는

말들이 아니라, 인류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오는 말들이 새로운 풍경을 만들 것이다. 히스토리컬렉션이나 풀무에서 시사를 받은 것은 공동체 감각이었다.

5. 에펠로그-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간단계 아카이브

1)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수자가 자기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저항이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다. 정의(justice)의 고대 그리스어 어원은 부당하게 닦친 현실, 좀 심하게 닦쳐 온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이에 대항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히스토리아카이빙처럼, 감옥에 갇힌 재소자가 살아올 세월의 부당함과 미래를 향한 열망을 말하는 것,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은 감옥이라는 운명에 저항하는 정의이다. 물론이야기한 편이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때로 어떤 이야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변화의 임계점에서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저 한 편의 작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지금 말하려는 것은 변화의 임계점이어야 한다는 그런 거대한 정의가 아니라, 새벽안개처럼 삶에 미시적으로 펼쳐지는 정의들이다. 자신의 삶을 공인받는 발걸음은 정의이다. 개인이든, 공동체가든 자기만의 기억의 고유한 재현방식을 사회 내에서 공인받기 위한 노력 또한 우리는 정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히스토리워크숍 아카이빙은 이런 점에서 주목받을만하다.

만약, 공동체 아카이브가 소수자기억을 아카이빙한다고 선언한다면, 그 순간 공동체 아카이브는 정의를 위한 운동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대공동체간의 투쟁적 대립 구도가 아니다. 보다 폭넓게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 일상을 아카이빙하는 차원과 연결이 된다. ‘정의롭게 맞서는 일상’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곽건홍, 2011).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영역 안에서 무엇을 아카이빙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김익한, 2009).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아카이브 고민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보슬비가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소리 소문 없이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다(김익한, 2010).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견지해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기억과 정체성의 맥락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말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아카이브 환경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맹렬한 기세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은 자본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어렵게 변해버렸다. 자본의 욕망은 매일 생기고 증폭되고 전이된다. ‘정의롭게 맞서는 일상’ 개념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깊고, 소수자 아카이브를 정의의 맥락에서 전개하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중간단계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거대하거나 너무 미세한 기록관리에 매진했던 것은 아닐까? 거대한 국가기관의 기록관리로부터 시작되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기록관리까지 내려갔었던 것은 아닐까?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국가와 개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단체,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소수자 공동체 등의 아카이브 작업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돌려야 하지는 않을까? 사실 이런 중간단계 아카이브 작업의 필요성은 그동안에도 있어왔다. 앞에서 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공동체 아카이브 작업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중복의 위험성을 무릎 쓰고 다

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방법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동여지도-동무의 지도’라는 은유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1861년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 20세기 전에 한반도를 그린 지도는 하나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가장 큰 지도이면서 가장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대동여지도’가 있으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산, 이를테면 금정산에도 갈 수 있다. 금정산에 위치한 민주공원이나 중앙도서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대동여지도에는 큰 산, 주요 시설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정산 입구에서 위로 꾸불꾸불 200미터쯤 올라가다가 큰 바위 틈 사이에 휘어진 채 서 있는 소나무를 돌아 30미터쯤 더 가면 아담하게 서 있는 빨간색 우체통이 있고, 그 옆 동무의 집을 찾을 수는 없다. 동무의 집을 찾으려면 동무가 그려준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번 풀무컬렉션 작업은 한반도 전반을 훑어보는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풀무를 방문할 동무를 위한 지도(Narrative Maps)를 그리는 작업이었다. 풀무에는 ‘풀무기록’이 있었고 풀무사람들에 의해 정리기술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기록을 선용했으며, 기록을 선용하면서 자신과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야기 기술이라는 다소 독특한 기술 방식을 세상에 선보인 것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풀무아카이브 워크숍을 하면서 ‘기억의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마도 이것은, 공동체 아카이브에는 ISAD(G) 같은 표준도 필요하겠지만, 표준이 예상하지 못한 기술서가,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파리가 많아야 한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은 아닐까? 중간 단계의 아카이브 작업이 필요하며 그것은 외부로부터 전문가에 의해 적용되는 국가표준이나 국제표

준이 전에 내부로부터 공동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동체와 공동체 기록에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중간 단계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아카이브 방법론, 그리고 새로운 아카이브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미셸 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1963(홍성민 옮김, 2006, 이매진).
- 미셸 푸코, 『말과 사물』, 1966(이광래 옮김, 1987, 민음사).
- 키스 켄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1991(최용찬 옮김, 1999, 혜안).
- 존 H. 아널드, 『역사란 무엇인가』, 2000(최생열 옮김, 2003, 동문선).
- 프레드릭 M,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 최광호, 『사진으로 생활하기』, 소동, 2008.
- 이영남, 「‘마을 아르페’(Community Archive) 시론」,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 김익한,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 곽건홍, 「일상아카이브(Archives of every daylife)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 윤은하, 「북미기록관리학의 동향과 전망」, 『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2), 2011.

조민지,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ABSTRACT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s

Lee, Young-Nam

This paper considers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es by exploring the concepts and meanings of archival description. The author deals with two interesting cases -Herstory Writers Workshop Collection of Stony Brook University in New York and Poolmoo Collection of Poomoo Agricultural School in Korea. The author argues that archivists should know the specifications of Community Archives related to National Archives when they organizing and preserving records and archives of community archives.

Key words : Community Archives, Michel Foucault, ISAD(G), Arrange and Description, Everyday Archives, Classification, Narrative